


## 3» 행정박물관 김혜정 관장 직위해제





## 6» 강의를 팝니다?

**익명**

08/11 14:19

기후변화 배분 오만에 삽니다 학교에 잇구요  
전자정보실에서 거래하면 좋겠습니다 댓글부탁드려요!

 0  1

## 2015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학점 취소안내

취소기간 : 9월 8일(화) 10:30 ~ 9월 14일(월) 18:00  
취소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수강학점 취소신청▶과목선택(취소하기) 클릭  
유의사항  
①수강취소한 학점은 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에 포함  
②수강과목을 취소한 경우 해당 과목 대신 다른 과목 신청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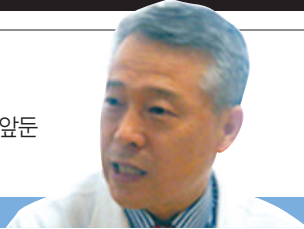


## 청운관 앞 ‘녹원’ 소나무 폭우로 쓰러져

지난달 28일 저녁 7시 30분경, 쏟아진 폭우로 녹원 앞 소나무가 차도 위로 쓰러져 아찔한 광경을 연출했다. 관리팀 측은 지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약해진 지반이 소나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 Newsmaker

비만 치료 한약재 ‘한슬림’(감비산) 임상 2단계 앞둔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이재동 교수



## “‘한슬림’ 지방 소모 극대화 보조제 다이어트는 체중 보다 체지방 핵심”

김도엽 기자 wognd567@khu.ac.kr

#. 지난해 의약전문업체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여성의 67%가 365일 내내 다이어트 중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최근에는 남성도 다이어트 열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18일 우리학교 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이재동(침구과) 교수 연구팀의 비만 치료 한약재인 ‘한슬림’(감비산)이 식약처로부터 임상실험 3단계 중 2단계 승인을 받았다. 이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한슬림’은 기존 다이어트 한약과는 다르게 잉여지방만을 줄이기에 부작용이 없다

이 교수는 “한슬림의 이번 임상 2단계 승인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크다”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이 제품이 실제 약으로 시판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동물임상실험이고 이 단계가 끝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임상실험을 거쳐야 한다. 현재 한슬림은 동물 임상실험단계가 끝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 2단계 승인이 난 상태다. 이 교수는 “2차 임상실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슬림’은 임상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이미 환자들에게는 처방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환자

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상실험 단계에 있는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 그는 “저녁 늦게 섭취했을 경우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었

고, 기본적으로 약을 섭취하면서 식사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제가 될 만큼 큰 부작용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사실 이 약은 원래 다이어트 목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교수는 “무릎, 허리가 안 좋은 환자들은 체중관리가 중요한데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체중감량을 돕자’라는 생각에서 이 약을 개발하게 됐다”며 “현재 출시돼 있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제품들은 체중을 급격하게 줄여 생체리듬을 방해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한슬림’은 체내 잉여지방만을 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이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점이 기존 한의원 등에서 처방하는 다이어트 한약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슬림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는 가정 하에 지방 소모를 극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약이다”라며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를 줄였을 경우’ 지방 소모를 도와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게 하는 보조제”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 한약재 ‘한슬림’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교수는 “체중이 아닌 ‘체지방’ 감소를 최우선으로 하기 바란다”며 “체지방의 감소는 체중만 놓고 봤을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꾸준히 체지방을 감소하다보면 안 맞던 옷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곧 시작되는 한슬림 임상실험 2단계에,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위기의 ‘ABEEK’, 존폐기로에 서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 학사제도 개편 앞두고 공과대, 전자정보대 입장차… 실효성 논란도 여전

### ABEEK 존폐 논란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장연수 기자 ys0501994@khu.ac.kr

2016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ABEEK(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존폐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ABEEK은 대상자만 공학계열 재적 인원의 대부분인 7000명을 훌쩍 넘어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그간 이 프로그램은 입학 시부터 자동 이수가 시작돼 수강 커리큘럼 지정부터 실험·설계과목 개설 인준까지 학사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미쳐왔다.

ABEEK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에서 각 전공 별로

요구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공학 학위를 인준한다. 현재 ‘실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공학인 육성’을 취지로 국내 42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ABEEK을 통해 인증받은 학위는 해외 14개 국가에서 통용되며 취업 시 일부 기업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우리학교의 경우 2009년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를 제외한 공과대학의 8개 학과와 전자정보대학의 전자·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 정식 커리큘럼으로 지정된 상태다.

교내 유지여부 논란은 약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우리학교는 작년 7월 공인원으로부터 2016년도부터 ‘단일 프로그램 체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받았다.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김정희 과장은 “일반형 커리큘럼과 ABEEK형 커리큘럼 두 체제를 ABEEK형 하나로 합치라는 내용이었다”며 “이 경우 기존에 학교에서 세운 커리큘럼인 일반형 커리큘럼이 사라지기 때문에 ‘ABEEK 포기’라는 개념 없이 전원이 ABEEK을 이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학과 내부에서 ABEEK에 관련된 여러 회의가 있어왔지만 논

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부터다. 결정을 미루고 있던 두 단과대학이 결국 내년 학사제도 개편을 앞두고 더 이상 결정을 유보할 수 없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공과대학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전자정보대학은 ‘유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5면으로 이어짐

## 대학주보 수습기자 모집

모집분야 : 영상뉴스·소셜미디어·사진·일반기자  
모집기간 : 9월 1일~9월 11일  
지원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www.mediakhu.ac.kr/khunews)에서 신청

▶7면으로 이어짐

# 문명,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

##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①

고 원 후마니타스 칼리지

#. 후마니타스칼리지와 대학주보가 공동연재하는 ‘고전의 사계’가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으로 바뀝니다.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은 고전에 대한 설명이 아닌 우리학교의 교양교육인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강조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배경과 설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명’은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생겨난 개념이다. 이 용어는 중농주의자였던 미라보 후작이 자신의 저서 『인간의 친구 또는 인구론』(1757)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이후 볼바크, 몽테스키외,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영어권에서도 아담 퍼거슨의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서론』(1767), 존 밀러의 『사회에서 신분구별에 관한 고찰』(177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 등에 문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이처럼 문명이라는 개념의 탄생

과 확산에는 계몽주의와 진보주의의 흐름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계몽주의자들은 문명을 ‘인간 이성의 발현’ 혹은 ‘인간성의 진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문명(civilis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형용사 civil(예의바른, 시민의)은 13세기부터, 동사 civiliser(교화하다, 개화하다)는 16세기 후반부터 쓰이고 있었다. 특히 과거분사 civilise(세련된, 개화한)는 17세기 프랑스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단어들은 모두 라틴어 civitas(도시)로부터 유래하며 중세말기 프랑스 사회에서 예의

를 갖춘 세련된 사람들, 즉 궁정의 교양인들을 투박하고 거친 하류층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러한 단어의 역사는 문명이라는 용어가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문명은 자연의 반대말이면서 또한 야만의 반대말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지만 계몽주의자들은 점차 자연과 야만을 동일시하면서 하나의 의미를 만들어내었다. 문명은 인류가 최고로 발전한 상태이다.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사령 <명>

<뉴스팅장>  
이시은(컴퓨터공학 2011)

<파트장>  
권윤지(정치외교학 2014)  
황경선(철학 2014)

<정기자>  
강경진(스페인어학 2014)  
고상아(연극영화학 2015)  
김도엽(정치외교학 2012)  
김종완(화학 2015)  
양진원(생물학 2014)  
이소진(일본어학 2014)  
장연수(중국어학 2014)  
조민호(관광학부 2015)  
최재원(철학 2015)

박기훈(경영학 2014)

강규연(의류디자인학 2014)  
김규래(경영학 2012)  
김예준(일본어학 2015)  
류제원(지리학 2015)  
이성민(프랑스어학 2015)  
이수형(경제학 2015)  
정혜빈(원예생명공학 2015)  
최병헌(경영학 2015)



시선

사설

공사장이 된 캠퍼스  
안전 대책 이상 없나

-녹원 조경공사 사고를 보며

지난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경, 서울캠퍼스 녹원 조경공사 현장에서 커다란 소나무가 도로를 가로질러 쓰러지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벌어졌다. 석재 벽면 철거 등으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자 소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다. 방학 중인데다 교직원 퇴근시간도 지난 저녁 무렵에 일어난 일이라서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일이 만약 유동인구와 차량이 몰리는 퇴근 시간이나 개강 후에 벌어졌다면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사건이었다.

2학기 개강을 맞은 지금, 서울캠퍼스는 거대한 공사장을 방불케 한다. 개강 이후 오래지 않아 완료될 녹원 조경공사는 차치하더라도, 스페이스21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대운동장과 노천극장 일대에서는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대규모 공사가 이어질 것이다. 자연히 공사차량의 출입도 빈번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지하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학내 차량의 동선 변경도 찾아질지 모른다.

문제는 이 새로운 풍경이 기존의 일상 위에 덧씌워지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학교 측에서는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며 대안을 세워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몇 차례의 소나기로 촉발된 지난 8월 28일의 소나무 사건처럼 말이다.

가령, 학교에서는 대다수 구성원의 주요 동선인 혈떡고개의 도로통행을 금지하고 바로 옆 숲 속에 대체 동선을 조성해놓았다. 물론 이것은 공사차량 및 노천극장 임시주차장으로 향하는 학내 차량들의 동선을 감안한 보행자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동선, 즉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습적이고 지속적인 무의식적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혈떡고개는 지난 60여 년간 구성원들이 관습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이 온 학내의 중심 동선이며, 게다가 인위적으로 새롭게 조성된 ‘새 길’들은 장애인 접근성 등 여러 면을 감안해볼 때 기존 동선 대비 월등한 편의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예측컨대 개강 후에도 여전히 많은 구성원이 무의식적으로 혈떡고개 차로를 걸어 다닐 것이다. 하지만 스페이스21사업에서 안전문제를 포함해 모든 사항을 챙겨야 할 단장직은 현재 공석 상태다. 이런 객관적 현실들은 ‘몇 차례의 소나기’처럼,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특정 요인들의 중첩 속에서 언제든 큰 사고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경회 구성원이 신중히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학교 측은 예상 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표지판 설치와 같은 수동적인 조치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체화된 구성원들의 인식과 감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인상적인 캠페인을 펼치는 등의 다양한 관점과 방식으로 구성원 안전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미연에 방지해갈 수 있을 것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형강의 사라진다

미디어 여론동향 2015. 8. 17 ~ 8. 3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2015학년도 2학기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에서 개설되는 강의 중 온라인 특강과 체육 강좌 외에는 ‘대형 강의’가 사라질 전망이다.(2015학년도 2학기 후마 대형강의 사라질까/대학주보 온라인, 2015.8.26)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의 대형강의는 2013학년도 2학기 1강좌를 시작으로, 2014학년도 1학기에는 38개로 크게 늘어났다. 후마 측은 “학교 재정 문제로 부득이 대형강의를 운영했었다”며 “하지만 여러 문제점과 학생, 교강사의 불만으로 인해 곧바로 줄였다”고 밝혔다.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수를 대폭 줄여온 대형강의는 이번 학기에도 최대한 개설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일반



이주의 주제 - 수강신청 강의의 시간표 변경

강의 시간표 변경 시, 피해 최소화 해야



최병현  
(기자)

수강신청은 학생들의 한 학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벤트다. 수강신청에 성공했는가 여부에 따라 아침잠 1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한 학기의 모든 일정이 통째로 뒤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수강신청 기간 동안 수강시간표 관련 글이 넘쳐나는 SNS화면과 수강신청 당일 환호와 탄식이 교차하는 학교 주변 PC방의 풍경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돼버렸다. 급기야는 강좌가 돈으로 거래되는 일도 왕왕 발생한다. 그만큼, 수강신청과 관련된 문제는 학생들에게 예민한 화두인 것이다.

‘경영대학의 전공시간표 변경’ 문제를 짚어보며 우리학교의 행정시스템이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실제로 수강신청 직전 폐강되는 강좌들이나 강좌 시간표와 교강사가 소리 소문 없이 변경되는 사례들은 매 학기 빈번히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단과대학 행정실은 항상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번에도 다를 바 없었다. 희망과목담기 기간이 끝나면 바꿀 수 없다. 이를 토대로 수강신청을 하는 학생들의 불이익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교 측의 반응은 자못 뒷박이다. 취재 도중 듣게 된 관련부서 모 관계자의 발언 내용

은 다음과 같았다.

“희망과목 담기는 강좌 수요 예측이 목적일 뿐이다. (부수적 효과로)수강신청에서 편의를 제공했는데, 그 편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취재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

해당 사안에 대해 단과대학별 현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강좌 변경-폐강에 관한 공지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심지어 몇몇 단과대학의 경우엔 “폐강 및 강좌 시간 변경을 그때그때 처리하기에 따로 강좌 리스트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율운영제도의 시행으로 주요 학사업무가 단과대학에 이관됨으로써 신속하고 능동적인 의사결정과 단과대학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학사지원과의 바램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모든 단과대학의 학사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과대학의 경우 피해사례 접수 시 최대한 다른 수업을 배정하고, 수강신청 이후 변동에 대해서는 해당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의 동의를 구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문제는 단과대학 별로 상이한 행정처리와 학사지원과의 체계적이지 못한 지원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단과대학 중심의 업무’라는 말로 포장하는 학교 측의 나태한 태도에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단과대학에 이관된다’는 말이 업무 떠넘기기가 아닌 진정한 ‘효율운영제도’로써 자리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의의 정원 수를 5~10명 정도로 소폭 늘리는 방안을 취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자치회비 내역을 밝혀달라’(#경희숲.10555, 2015.8.26)는 글이 화제였다. 이 글에는 49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글쓴이는 ‘여태까지 계속 있었지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데 선뜻 계속해서 내기가 내키지 않았다’며 ‘국제캠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도 공식적으로 언급해달라. 자치회비 사용내역을 왜 안올리는지, 왜 아직까지 입을 닫고 있는지 알고싶다. 또한 단과대학 학생회비 사용내역도 궁금하다’고 적었다. 댓글로 ‘자치회비 보이콧이라도 해야 하나 알려주려나’라는 의견이 달렸다.

글로벌센터는 졸업을 맞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4년 전 입학 당시 썼던 ‘졸업식 날의 나에게 쓰는 편지’를 되돌려줬다.(경희대, 외국인학생에 4년전 ‘졸업하는 나에게 쓴 편지’ 전달/뉴스1, 2015.8.24) ‘졸업식 날의 나에게 쓰는 편지’는 2011학년도 2학기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쓴 편지로 그동안 글로벌센터에서 보관해왔다. 당시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학생 68명이

참여했다. 편지를 돌려받은 외국인 학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낯설고 무섭기만 했던 1학년 시절에 쓴 편지를 지금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학교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고령사회 선제 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친고령특성대학원’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 오는 9월 개원한다.(親노인 대학원 생긴다, 경희대 친고령특성화 대학원 출범/한국대학신문 2015.8.26.) 올해부터 5년간 정부 지원과 더불어 학교 측은 친고령특성대학원에 약 44억 원을 투자해 100여 명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질환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을 벗어나 노인의학·의학·한의학·사회복지·영양학·주거학 등 융합적 교과과정 운영으로 최종 목표인 한국형 모델링 확산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인원 총장은 “건강노화 전문대학원, 건강노화 직업정보센터, 건강노화 교육센터 등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실질적인 융합을 토대로 한 노인학전문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다가온 당신의 ‘가을’에  
열정이 깃들기를

세시봉

이시은 <뉴스팀장>



쌈쌀해지는 날씨를 보며 졸업까지의 대학생은 사계절과 같다고 느꼈다. ‘봄’에 입학한 학생은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학교 이곳저곳을 누빈다. 그동안 억압해왔던 족쇄들이 한 번에 풀어지는 시기로 다가오기도 한다. 시간이 흐른 뒤 ‘여름’의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공간이다. 캠퍼스의 친구들과 눈인사하며 학교 주변 맛집도 모르는 곳이 없다. 하지만 ‘가을’부터는 느낌이 다르다. 다가올 현실에 대비하며 ‘겨울’을 기다리는 준비의 시기다. ‘겨울’로 남을지 ‘새로운 봄’이 될지는 저마다의 준비에 달렸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사계절 중 ‘가을’에 관한 것이다. 준비의 시기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가을’의 가치는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요즘 캠퍼스의 ‘가을’은 빠르게 다가오는 듯하다. 이전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들 현실에 일찌감치 얽매인다. 혹자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자꾸만 어려워지는 세상의 쓸쓸한 단면이다.

지난 달 16일 우리 신문이 만나봤던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역시 이러한 세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학생들은 ‘스펙 쌓기’에 열중했다. 영어회화,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 등 떠나야 할 ‘스펙’또한 끝이 없었다. 지난해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방학 중 사교육비는 월 평균 75만원으로, 고교 사교육비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취업 사교육비 역시 전년대비 5.3%의 증가폭을 보여 학생들이 쉴 틈 없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피로한 청춘의 기다란 그림자다.

사계절 같은 대학생의 일상

당신의 가을은 찬란하다

이런 상황에서, 숨 가뻔했던 방학을 보내고 이제 2학기를 맞이하는 당신의 자세는 어떠한가 감히 묻고 싶다. 힘을 것이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다. 각종 언론에서 쏟아내는 경제난과 취업에 관한 이야기들은 내일로 향하는 하루, 하루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할지도 모른다.

기자 역시 조여 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학점과 스펙에 한숨짓는 한 명의 학생일 뿐이다.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아 슬프고 졸업 후의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룬다. 주위 친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토로한다. ‘힘들다’, ‘불안하다’, ‘지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곤에 절은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은가.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우는 당신을 보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 수많은 땀을 흘린 당신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걸음을 더디보자. 지치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고 강의실 문을 열어보자. 멈추지 않고 달려온 우리들의 모습은 나중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더욱 아름다우리라 확신한다. 싱그러운 ‘봄’과 역동하는 ‘여름’만큼,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가을’도 어느 계절보다 값지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정 | 편집장 박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3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김혜정 교수, 직위해제 ... ‘횡령’ 등 4개 비리 의혹

〈헤정박물관장〉

〈감사행정원 감사 결과〉

## 헤정박물관 논란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이승연 기자 leesy0177@khu.ac.kr

지난 8월 20일 김혜정 석좌교수가 헤정박물관 관장 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는 1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된 감사행정원(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결과 김 교수는 횡령을 비롯한 4가지 비리의혹을 받아 ‘징계’ 절차에 회부된 상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직위 해제된다.

김 교수가 받고 있는 첫 번째 의혹은 횡령이다. 헤정박물관은 작년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세계고지도로 본 동해’전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김 교수가 전시업체에게 환급받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총 976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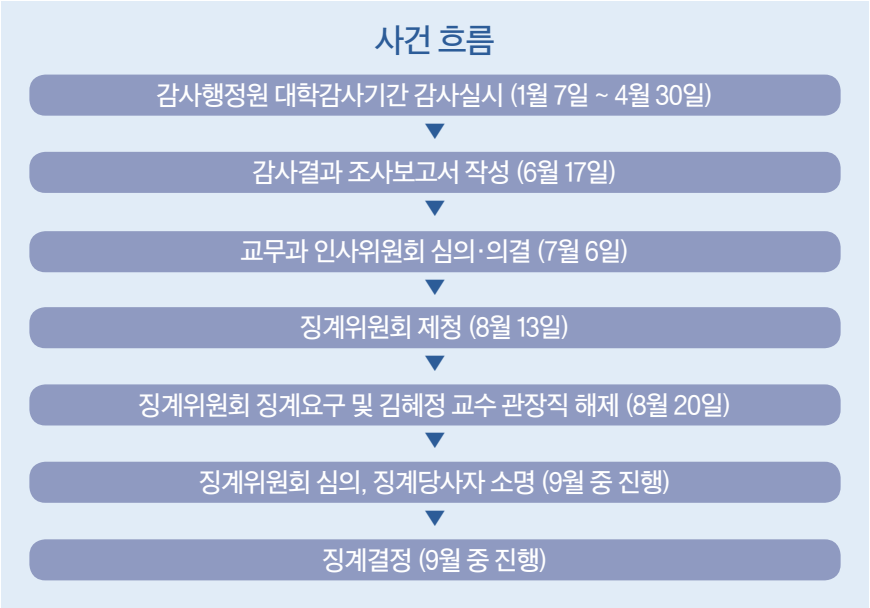
두 번째 의혹은 기탁유물을 학교교비로 구입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헤정박물관의 유물을 기증된 유물 2,699건, 기탁유물 2,709건과 교비로 구입한 유물 193건까지 총 5601건으로 산출하고 있다. ‘기탁유물’은 김 관장의 ‘개인소유’이지만, 학교의 유물수장고에 보관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다른 유물처럼 활용될 수 있다.

## “비리의혹이 드러나 징계절차 진행, 징계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교수는 기탁유물 30개를 교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캠퍼스 감사원 조성인 계장은 “기탁유물은 대학의 수장고에 있고 전시목적의 사용도 가능해 학교 측에서 구태여 살 필요가 없는 유물인데 김 관장이 학교 교비로 구매했다”며 “사립학교법 66조 4항에 따라 시효가 소멸한 건을 제외한 유물만 징계절차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교 소유의 유물인 ‘기증유물’을 집으로 무단 반출하고 이를 잃어버린 점, 헤정박물관 직원 및 조교를 개인적인 일에 동원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번 감사결과와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조 계장은 “감사결과 비리의혹이 드러나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이고,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세한 이야기는 징계결과가 나와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언론보도에 나온 ‘보복성 징



계’라는 김 교수의 언급에 대해 조 계장은 “이번 감사는 대학 정기감사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헤정박물관 감사결과에 4월 30일 완료, 6월 17일 총장결재를 받아 7월 6일에 교무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8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 징계요구를 통해 김 교수는 8월 20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비전임교원인 김 교

수는 법인 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징계위원회 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조심스러운 건 김 교수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이번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처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이 같은 학교의 감사가 행정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 현재 헤정박물관은 정상 운영수장고 유물은 봉인된 상태

학교 측과 김 관장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향후 헤정박물관 운영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헤정박물관은 2002년 당시 조정원 전 총장과 김 교수와 맺은 ‘자료 기증에 대한 예우’에 따라 2004년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이다. 현재 헤정박물관의 전시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논란 속 유물들이 보관된 수장고는 봉인된 상태다.

## 대학구조개혁평가가집계 결과 발표, 우리학교 A등급 확정적

### 대학구조개혁가집계 결과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우리학교는 지난 25일 대학구조개혁평가가집계 결과로 교육부로부터 ‘자율감축’을 통보받았다. 이는 ‘사실상’ A등급을 의미한다.

대학구조개혁은 올해 3월 1단계 자체평가보고서(정성평가용)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됐다. 각 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에 따라, 감축해야 될 정원의 비율 또한 달라진다.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정원을 자율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B,C,D,E 등급)을 받게 되는 학교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낮은 등급을 받을수록 감축해야 하는 정원의 비율이 늘어난다. 이번 가집계 결과 통보에서 등급을 명확하게 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유지연 팀장은 “등급은 기재되지 않았지만 정원감축에서 A등급에 해당되는 ‘자율감축’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A등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이 발표된 지난해 1월,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부실대학 퇴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교육부는 반대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감축에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겠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황이다. 또 부실대학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도 지난 4월부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개혁을 밀어붙일 ‘동력’ 자체는 상당히 약해진 상태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교육여건 지표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우 팀장은 “결과가 좋게 나온 것 같아 다행이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면서 “결과와 상관없이 1주기 실적을 2주기에 반영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주일간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추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안내

###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2015.9.9.(수) 10:00~12(토) 17:00	인터넷접수 <a href="http://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a>
서류제출		2015.9.9.(수) 10:00~16(수) 17:00	
1단계 합격자 발표		2015.10.20(화) 16:00 2015.11.18(수) 16:00	실기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별 고사 일	면접고사	2015.11.28(토)~29(일)	학생부종합전형
	논술고사	2015.11.14(토)~15(일)	논술우수자전형
	시·소설	2015.10.24.(토)	실기우수자전형
	조리	2015.10.25.(일)	
	성악·피아노	1단계: 2015.9.19(토)~20(일) 2단계: 2015.10.24(토)~25(일)	
	한국화·회화·조소	2015.10.24.(토)~25(일)	
	한국무용·현대무용·발레	2015.9.19(토)	
	글로벌(영어)	2015.10.31(토)	
	디자인·도예	2015.10.24(토)	
	Post Modern 음악	2015.10.8(목)부터	
	연기	1단계: 2015.10.8(목)부터 2단계: 2015.10.31(토)	
	체육	2015.10.25(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15.11.18.(수) 16:00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 학교생활충실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실기우수자전형
		2015.12.9.(수) 16:00	학생부종합전형(내오르네상스, 고른기회, 단원고특별), 논술우수자전형
등록(예치)금 납부		2015.12.11.(금)~14(일)	
전여등록금 납부		2016.1.29.(금)~2.2(화)	

### ■ 2016학년도 수시모집 특징

선발인원 : 서울캠퍼스는 1,434명, 국제캠퍼스 1,591명(전체 모집인원의 62.8%)

금년도 수시모집의 특징은 고교교장상하에 기여하고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가운데서도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하고, 논술우수자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모집인원도 축소한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전년도 1,770명

(정원 내 1,651명)에서 2016학년도 1880명(정원 내1,745명)으로 전년 대비 5.9% 확대했다. 반면 논술우수자전형은 전년도 1,040명에서 2016학년도 925명을 선발해 전년 대비 11.1% 축소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내오르네상스전형 및 고른기회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에서 서류종합 평가 성적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인성면접 성적 3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가른다. 지역균형전형 및 학교생활충실자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 70%와 서류 종합평가 성적 30%를 일괄합산하여 선발한다.

내오르네상스전형 및 고른기회전형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통 질문 및 개별 질문을 통한 10분 내외(의학계열은 20분 내외)의 인성 면접 평가가 진행된다. 면접을 통해 가치관과 인성,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서류역량 재확인, 장학이념 적합도, 전공 기초 소양, 논리적 표현 능력이다.

논술우수자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소폭 완화하였다. 의예과, 한의예과(인문/자연), 치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탐구영역은 상위 1과목만 반영한다.

※입학처에서는 경희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수험생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오니, 입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입학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 : 서울캠퍼스 내오르네상스관 2층 입학처,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 1층 입학처  
• 전화상담 : 1544-2828

## 2015학년도 하반기(2학기) 고교연계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내용	일정
경희 OPEN CAMPUS 전국캠프교실	[서울] • 이과대학 : 우수 고교생을 위한 디스플레이 캠프 • 의과대학 : 의과학 멘토링 캠프	추후 공지 예정
	[국제] • 공과대학 : 힘과 운동에너지의 세계 • 전자정보대학 : 전자공학의 세계로(Robot 프로그램) • 생명과학대학 : 생명과학으로의 여행 • 응용과학대학 : 물질의 구조와 성질 그리고 새로운 탄생	2016. 1 예정
일일대학생	• 재학생(멘토)과 고교생(멘티) 간 1:1 결연을 통한 대학생활 체험 기회 제공 • 대학 수업 청강, 캠퍼스 투어, 진학상담을 통해 진학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제공	• 서울 : 2015. 9 ~ 11 • 국제 : 2015. 7 ~ 9

## 지식창업교육과정 수강신청 안내

- 특허청이 지원하는 경희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 사업단(2015.1)이 설립한 지식창업교육센터(2015.3)가 기존의 지식·창업교육과목을 확대, 개편 운영하는 교육과정
-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를 통합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창출과 지식창업(진로를 탐색·설계)역량의 배양을 목적으로, 꿈과 희망을 찾는 학생의 비전을 위한 교육과정
- 전공지식을 도구적 수단으로 사회의 문제를 발견, 해결(발명·특허)하는 체험학습의 융합형 교육과정
- 산업계전문가와 교수가 함께 설계하고 강의, 실습, 지도와 상담을 하는 산업계 중심의 전문 교육과정
- 졸업증명서에 지식창업트레이수를 무기해주고, 관련 지식과 역량을 보장하는 교육과정(2016년부터 적용)

## 지식창업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이수체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교육과정체계	창의교육(6)	전공융합교육(9)	창업교육(12)		
학점 이수체계	기초 : 3학점	필수 : 9학점	전공선택 : 12학점		
Creativity	과학, 예술, 문화와의 만남	아이디어에서 제품까지			
Innovation/Design	특허와 창의적 사고	특허와 지식재산권	창업과 도전	특허정보 조사 및 분석	FRD와 특허전략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와 지식재산권	창업과 도전		
Entrepreneurship		지식재산창업	창업과 재무관리	창업전략과 모의창업	

문의처 : 지식창업교육센터(031-201-3569)



보도



국제캠 중앙도서관은 여름방학 중 출입문 설치와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외부인 이용·열람실 사석화 ‘이젠 그만’

국제캠 도서관 열람환경 개선 사업  
강규연 기자 jennifer024@khu.ac.kr

【국제】 중앙도서관은 지난 방학 기간 중 ‘열람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크게 ‘일반 열람실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자료 열람실 신간코너 리모델링 사업’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됐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은 대학본부와 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특성상 건물의 주 출입구에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그리고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좌석표를 발급받지 않은 외부인의 열람실 무단이용, 혹은 시험기간의 고질적인 열람실 사석화 등과 같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완료된 ‘일반 열람실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결과로 중앙도서관 제1,2,4 열람실 입구에는 자동 개폐식 출입통제 개찰구가 새로 설치되었고, 1층 로비의 좌석관리시스템 단말기 3대

도 신규 단말기로 교체되었다. 더불어 새로운 출입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앞으로는 열람실 이용자의 출입과 외출시간이 기록돼 장시간 외출자의 좌석이 자동으로 반납되게 된다.

중앙도서관 열람과 김상욱 계장은 이에 대해 “특히 시험기간 중에 이용자가 좌석을 반납하지 않고 외출하여 다음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면서, “본 사업, 특히 새로운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열람식 좌석의 이용편의성과 관리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바일 접근성도 강화됐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경희대학교 열람실 좌석예약’ 앱을 개발해 서비스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학생들은 국제캠 전용 ‘경희대학교 열람실좌석예약’ 앱을 통해 좌석관리시스템 단말기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열람실 좌석을 발급받거나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앱을 통해 중앙도서관 내 ‘그룹 스터디룸’도 곧바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경희대학교 앱’에서는 열람실의 잔여좌석 현황만 확인

할 수 있었고 그룹 스터디룸 예약도 ‘온라인 신청 후 방문하여 담당직원의 승인’을 얻는 복잡한 단계로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절차가 상당부분 간소화되어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입학 직후의 학생증 미발급 신입생과 편입생, 그리고 학생증 재발급 신청자 등도 ‘경희대학교 열람실 좌석예약’ 앱을 통해 일반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중앙도서관 측은 ‘자료열람실 신간코너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자료열람실 신간코너의 서가 및 소파, 테이블 등의 기자재를 교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김계장은 “그동안 시험기간에 도서관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을 보며 안타까웠다”며 “북카페 같은 안락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쉬면서 책을 읽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계장은 “리모델링 이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늘었고 좋아졌다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전하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출입시설 설치 8년, 고장 잦아 ‘좌석배정’시스템 연동도 필요

서울캠 도서관 출입문 문제  
방누리 기자 nuri6524@khu.ac.kr

【서울】 지난 6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 열람실 출입문 설치’한다는 내용의 우리신문 기사가 나온 후 SNS 상에서는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 출입문도 새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취재 결과, 서울캠 중앙도서관 출입문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외부인 출입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사서과 장소영 과장은 “서울캠 중앙도서관은 단독건물이고 경비실에서 관리를 하니깐 괜찮다는 인식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시청각실과 같은 곳에는 외부인 출입도 많아 안전문제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부인이 중앙도서관에 무단으로 들어와 물의를 빚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장 과장은 “그동안 중앙도서관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도난사고가 발생한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며 “노숙자가 중앙도서관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다가 쫓겨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학교 구성원이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출입문 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캠 중앙도서관 출입문의 문제점은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허술한 것 뿐만 아니라, 장비가 노후화 돼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도서관 출입문은 지난 2007년에 설치된 것으로 사용하자 8년이 지나, 고장이 나면 교체할 부품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또 출입문과 좌석배정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열람실 사석화를 방지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다. 중앙도서관 오나선 직원은 “출입문이 바뀌면 다양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며 “학생들이 퇴실처리를 하지 않은 열람실 빈 자리를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 직원은 “이런 시스템은 타 대학들의 경우 이미 3~4년 전에 도입한 상황”이라며 “직원 입장에서 학생들의 필요가 있기 전에 선도적으로 좋은 시설을 도입하지 못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서울캠 중앙도서관 측은 출입문 시스템을 바꾸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진행이 쉽지 않다. 장 과장은 “2013년부터 출입문 교체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지만 학교의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 3년째 뚜렷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도서관 측은 올해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도서관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출입문 관련 요구를 반영해 이를 내년 예산배정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2015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 채용설명회

\*일정이 변경되거나 회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회사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참조  
\*장소 설명 : 피스홀-도서관3층 피스홀, 국경-국제경영대학관, 공대-공과대학관, 전당-전사정보대학관

9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 현대중공업	2 ▶ 삼성전자 SLSI	3	4	5
6	7 ▶ 효성그룹 ▶ LG화학	8 ▶ 현대건설	9	10 ▶ 현대 오토에버	11	12
13	14	15 ▶ LS그룹	16	17 ▶ 대우건설	18	19
20	21	22 ▶ 한국수력원자력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기업명	일시	장소
현대중공업	9/1(월), 14:00-15:00	경영과학대학 시청각실
삼성전자 SLSI	9/2(화), 14:00-16:00	경영과학대학 시청각실
효성그룹	9/7(일), 14:00-16:00	도서관 피스홀
LG화학	9/7(일), 16:00-18:00	공대 107호
현대건설	9/8(월), 15:00-17:00	도서관 피스홀
현대오토에버	9/10(목), 15:00-17:00	전당 205호
LS그룹	9/15(월), 16:00-18:00	도서관 피스홀
대우건설	9/17(목), 16:00-18:00	공대 107호
한국수력원자력	9/22(월), 14:00-16:00	공대 107호

KHU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Tel 031-201-3061  
Homepage http://career.khu.ac.kr  
E-mail career@khu.ac.kr

2015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 채용상담

\*일정이 변경되거나 회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회사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참조  
\*장소 설명 : 피스홀-도서관3층 피스홀, 국경-국제경영대학관, 공대-공과대학관, 전당-전사정보대학관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31 ▶ 현대중공업	1 ▶ 삼성전자 SLSI	2	3 ▶ 한라영도그룹	4 ▶ 녹십자	5
6	7 ▶ 코오롱그룹 ▶ 효성그룹	8 ▶ SK건설 ▶ SK주식회사 C&C ▶ 현대건설	9 ▶ 현대다이모스 ▶ OCI	10 ▶ 코세아	11	12
13	14	15 ▶ 여천 NCC ▶ LS그룹	16	17 ▶ 대우건설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시	기업명	장소
8/31~9/1(월, 화), 10:00-17:00	현대중공업	도서관 로비
9/1~9/2(월, 화), 10:00-17:00	삼성전자 SLSI	도서관 로비
9/3(목), 10:00-17:00	한라영도그룹	도서관 로비
9/4(금), 10:00-17:00	녹십자	도서관 로비
9/7(일), 10:00-17:00	효성그룹	도서관 로비
9/7(일), 10:00-17:00	코오롱그룹	도서관 로비
9/8(월), 10:00-17:00	SK건설	도서관 로비
9/8(월), 10:00-17:00	SK주식회사 C&C	도서관 로비
9/8(월), 10:00-15:00	현대건설	도서관 로비
9/9(수), 10:00-17:00	현대 다이모스	공대 합기체
9/9(수), 10:00-17:00	OCI	공대 합기체
9/10(목), 10:00-16:00	코세아	학생회관 2층 다목적 세미나실
9/15(월), 10:00-17:00	여천 NCC	공대 합기체
9/15(월), 10:00-17:00	LS그룹	도서관 로비
9/17(목), 10:00-17:00	대우건설	공대 합기체

KHU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Tel 031-201-3061  
Homepage http://career.khu.ac.kr  
E-mail career@khu.ac.kr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 · 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명	모집부서	일시	장소	
롯데그룹 채용면담	2015 하반기 공채	9.1(화)~2(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롯데그룹 채용설명회	2015 하반기 공채	9.2(수) 15:00~17:00	청운관 B17호	
KT그룹 채용면담	(KT, KT &, KT m&s, KT SkyLife 방문예약)	2015 하반기 공채	9.3(목)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KT그룹 채용설명회	2015 하반기 공채	9.3(목) 16:00~17:3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사전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 :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가라데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업종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2. 특강

특강명	기업부서	일시	장소
대기업 그룹 기업분석 채용특강	삼성, CJ, 롯데그룹, 은행 및 카드사	8.31(월) 14:00~17:00	청운관 B17호

3.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팅 토탈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 인 상 담	분야별 컨설팅 4명	월 ~ 금 (각 컨설팅토털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07~2호	종합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매뉴얼에서 신청 (컨설팅토털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집 단 상 담	이중구 교수 (취진처 연구실장)공유권, 대 기업 상담	월 18:30~19:30	네오관 103호	
On Line Off Line 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서울캠 7개 건물 안전점검 'C등급'

## 점검 업체 동양기술 '장기사용하려면 보수공사' 권고

## 서울캠 안전점검 결과

양진원 기자 [ewsn0614@khu.ac.kr](mailto:ewsn0614@khu.ac.kr)

【서울】 한의과대학관을 비롯한 문과대학관, 이과대학관, 학생회관, 교수회관, 국제교육원 등 총 7개 건물을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건물의 종합평가 결과가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C등급은 건물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특히 건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콘크리트 강도는 모두 A등급(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6일부터 지난날 1일까지 진행됐으며, 우리학교가 동양기술에 의뢰해 실시했다.

## 학생회관 ‘기울고’, 교수회관

## 지하 1층 ‘철근부식 우려’

점검결과와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것은 학생회관과 교수회관이다. 학생회관의 경우 건축물 기율기가 C등급으로 나타났다. 학생회관의 건축물 기율기 측정값은 127.13mm~151.47mm로, A~B등급을 받은 한외국대학관의 기율기 측정값 1.95mm~37.36mm과 약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지난 2011년 발간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해설서(건축물)>에 따르면 건축물 기율기 C등급은 '구조물의 경사도가 감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교수회관의 경우 탄산화깊이 측정값은 0.81mm~34.16mm로 A~D등급으로 나타났다. 탄산화깊이는 콘크리트의 중성화정도를 뜻하며, 건물의 내구력과 철근부식 등에 영향을 준다. 이런 교수회관의 탄산화깊이 측정값은 A~B등급으로 나타난 한의과대학관 측정값 3.18mm~7.21mm과 약 5배 차이가 났다. 특히 교수회관 지하 1층의 탄산화깊이 측정값은 21.73mm~34.16mm로 방치시 철근부식에 따른 구조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점검이 실시된 모든 건물에서 '경미한 누수흔적이 발견'됐다. 동양기술 측은 점검보고서를 통해 '누수가 모두 경미해, 건물의 안전이나 구조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방수문제 보수방안을



토대로 보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고 권고했다.

“구조 안전문제는 없지만...”

## 장기적 사용위해 보수 필요

이번 점검이 실시된 7개 건물은 지어진지 평균 45년이 지났다. 동양기술 측은 “신축 건물도 A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며 “경회대 건물들은 노후된 것에 비해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점검보고서에서 지적한 바

와 같이 장기적인 사용과 편의를 위해 보수 공사는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주무 부서인 관리팀 측은 “당장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물의 안전점검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설계도면 등의 관련자료 검토,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 건축 하자 발생 부위 혹은 용도 변경 부위에 대한 구조 안정성 검토 등을 토대로 했다. 콘크리트 강도, 탄산화 깊이, 건축물 기둥기 등의 항목에 등급을 매긴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내렸다.

▶1면에서 이어짐

공과대학 측은 이미 학사지원과에 입  
장정답을 완료한 상태다. 공과대학 학사  
담당자는 이에 대해 “ABEEK 프로그램  
의 실효성을 두고 지난 1년간 내부에서  
수많은 논의가 있어왔다”며 “ABEEK  
단일 커리큘럼으로 가기에는 학생들에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제적으로 전공역량을 갖춘 방법을 모  
색 중이다”고 말했다. 공과대학은 개  
강 직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ABEEK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  
고 2018년도 2월 졸업자까지 ABEEK 희  
망 대상자들에 한해 관련 교육을 책임질  
계획이다.

반면 전자정보대학 측은 공인원의 공문을 받아들여 일반형 커리큘럼을 ABEEK 커리큘럼에 통합할 계획이다. 전자·전파공학 수준반 학과장은 “경직된 운영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ABEEK은 전공교육의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최근 공인원이 교육부 산하기관이 되었으므로 학과 역량평가에서도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컴퓨터공학 측 담당자 역시 “전공교육의 측면과 서울여고다 사업 기준 유지 등에서 ABEEK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단과대학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반면, 학생사회의 입장은 매우 뚜렷하다. ABEEK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ABEEK을 강제화하지 않는 공과대학 경우 전체 인원 대비 10%만이 ABEEK 커리큘럼을 유지하는 상태다.

도입 직후부터 학생사회에서 꼽았던 논란은 크게 세가지다. 교육과정의 문제, 취업 시 혜택 논란, 그리고 수강신청 시 행정문제가 그것이다. 위 사항은 대개 학기 초마다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들이다.

윤수호(건축공학 2010) 군은 “학과 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찌감치 ABEEK을 포기한다”라며 “수강신청도 힘들고 기업에서 주는 혜택도 미미해 다들 포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ABEEK은 대상자들의 교양·전공 과목에도 수강신청 시 ‘ABEEK 표기’를 명시해 해당 과목만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학생들은 일반 과목과 ABEEK 과목 양쪽 다를 수강할 수 있는 반면, 대상자들의 선택 폭은 좁은 상태다.

교육과정의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교내에서는 ‘지정된 전공과목과 일부 교양과목을 순서대로 이수하는’ 형태

의 프로그램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그 학점 수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필수교양과 겹쳐 졸업 시 까지 '정해진 수업'만을 순서대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레로 컴퓨터공학의 경우 학번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ABEEK 지정 전공 90~95학점(이중 전공선택은 26과목 중 9과목, 27학점이 필수), ABEEK 지정 교양과목과 후마니타스 칼리지 필수교양을 합친 30~35학점 까지 최소 120학점 이상이 지정돼 있다. 김민지(컴퓨터공학 2010) 양은 "교육과정은 정해져 있고 선수강 제도로 얹혀있어 잊하기 휴학, 재수강 등의 과정이 복잡하다"며 "마음대로 포기도 안돼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컴퓨터공학은 학과 시뮬레이션적으로 다전공자 이외의 ABEEK 포기를 금지하고 있다. 전자·전공공학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기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과대학 ABEEK 교육인증 과정

졸업이수 학점		13.0
교양이수 학점		전체 35 (지정과목 20)
전공이수 학점	MSC	30
	전공필수	18
	전공선택	36
	합계	84 (설계과목 12)
공학교육인증		인증 필
졸업논문		통과
전공영어 강좌이수		3과목 이상
졸업능력 인증제도		PASS

타 학교 역시 ABEEK의 실효성에 대해 점차 의구심을 품는 추세다. 올해 서강대의 경우 ABEEK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교내에서 심화전공제도를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서강대 김두승(기계공학 2011) 군은 “학교 자체의 심화전공제도가 ABEEK 프로그램을 대체하면서 큰 틀에서의 차이점은 못 느꼈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제도가 생략돼 현재보다 더 실질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자정보대학은 ABEEK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공과대학은 ABEEK 단일 과정 통합을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2009년 도입돼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한 ABEEK 프로그램이 우리학교에 어떠한 형태로 남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VOU소개 | VOU뉴스 | 오디오방송 | 영상방송 | 특별방송 | VOU커뮤니티

VOU방송국 방송국소개

VOU방송국 부시소개

VOU방송국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의소리방송국**



보도

수강신청 직전 폐강공지 논란 ... 학생 불만 끊이질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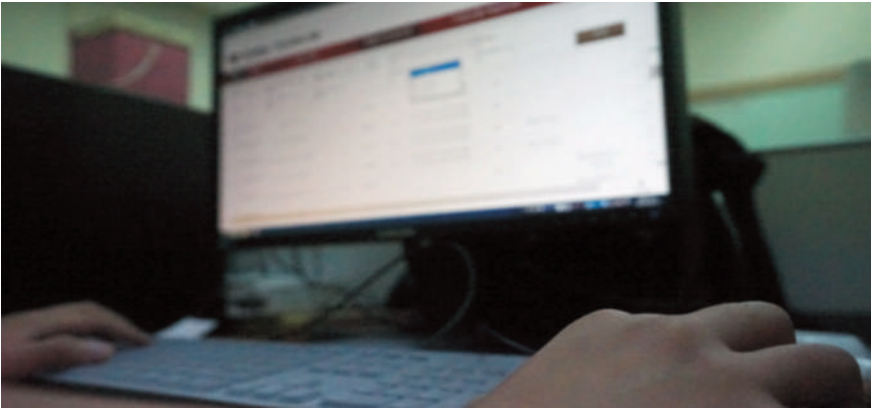
강좌변경 공지 논란

최병현 기자 kyoona@khu.ac.kr

#. 경영대학 1학년으로 재학 중인 A군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경영대학 측의 사정으로 전공시간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바람에 원하던 교양 과목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전공시간표가 여러 번 수정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A군은 “강좌 시간 변경으로 시간표가 밀리는 바람에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하게 돼 수강신청 정정 기간만 기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경영대학은 매 학기 신입생의 편의를 위해 1학년을 4개의 반으로 나눠 전공 수업을 배정한다. 경영대학은 지난 7월 20일 1학년 전공시간표를 공지했다. 이후 2차 희망과목 담기 첫날인 7월 22일, 최초 공지한 전공시간표가 변경됐다. 경영대학은 안내 문자를 통해 시간표 변경 사실을 공지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시간표를 다시 짜야했다.

그런데 다음날인 7월 23일, 경영대 2반의 <경영커뮤니케이션> 강좌 시간이 재변경되



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 7월 22일자 공지 게시글의 첨부문서가 ‘2015학년도 2학기 신입생 시간표\_수정20150723’으로 변경되었을 뿐, 이에 대한 별도의 공지나 안내문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 22일에 시간표 변경 사실을 확인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표 재변경 사실을 모른 채 2차 희망과목 담기를 마쳤고,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린 학생들은 시간표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희망과목 담기 기간이 지나 수강신청일에 ‘학수코드 직접 입력’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경영대학 측은 “학생들의 수강권을 보

장하려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 죄송하다. 당시 담당자의 외근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중요한 수강신청에 피해를 끼쳐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미숙한 공지로 피해를 봤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시간표 공지시기를 앞당기고, 정정 기간 때 여석을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영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수강신청 직전 폐강을 하거나 강좌 시간표나 교강사가 변경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확한 공지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강좌 시간 변경을 신속하게 전해야

할 수강신청 홈페이지의 ‘강의시간표 변경 공지’에는 2015년 8월 31일 현재 생활과학 대학의 2개 강좌의 시간 변경과 한의과대학 2개 강좌의 교강사 변경 안내만 올라와 있다. 이마저도 2차 희망과목 담기가 종료된 이후였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수강신청 전 폐강되는 강좌에 대한 공지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는 ‘강좌 폐강이나 시간 변경 공지는 각 단과대학이 관리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에 대한 통보는 단과대학 측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폐강공지는 수강신청이 끝나고 일괄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울캠퍼스 1차 폐강강좌 공고’의 내용에 따르면, 희망과목담기 기간과 실제 수강신청기간 사이에 변경된 내역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과대학은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하기에 따라 목록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로써는 변경된 강의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취재 결과 ‘경영커뮤니케이션’ 강좌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관리’ 강좌 그리고 문과대학의 ‘영미산문연구’ 강좌 또한 시간이 변경된 것

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수강인원 미달기준(전공교과목 15명, 교양 및 기타교과목 20명 미만)에 부합하는 정당한 폐강이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영어학부에 재학 중인 B양은 “수강신청 전날에 갑작스레 강좌 시간이 변경되어 당황했다”며 “공지를 조금만 일찍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측은 “수강신청 전에 폐강된 과목은 문자안내를 하기에 따로 공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님들께 2차 희망과목 담기 이후에는 폐강이나 시간표 변경을 자제해달라고 끊임없이 부탁하고 있다”며 “간혹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예비과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사지원과와 협의를 통해 피해를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목 담기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 성무건(경영학 2015) 군은 “변동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학교측이 이를 회피하는 것 같다”며 “일방적 통보 식의 학사행정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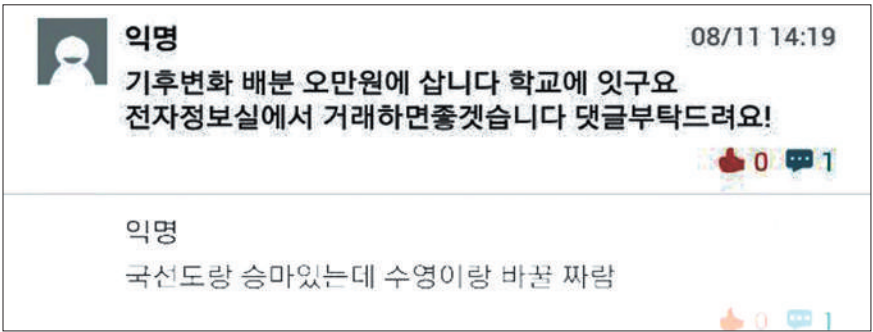
“OO강의 삽니다”, “OO강의 팝니다” - 강의를 삽니다?

계속되는 강의매매 문제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학점이 취직과 연결되는 사회적 풍토에서 학점을 잘 주기로 소문난 강의에 수요가 집중돼 수강신청에 실패한 학생들이 원하는 강의를 구매하는 ‘강의 매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강의 매매’는 방학 중 시행되는 수강신청 해당일과 개강 후 일주일의 정정기간에 발생한다. ‘강의 매매’는 시간표를 짜고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주로 성사되며,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강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게시글을 등록해 접촉한다. 수강권을 사고 파는 학생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직접 만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를 통해 ‘수강권 이전’의 대가를 치른다. 비용의 지불이 끝나면 강의 판매자는 수강



신청내역에서 해당 과목을 삭제하고, 강의 구매자는 해당 과목에 여석이 생기는 즉시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3학년 A씨는 “3만원에 전공 강의를 산 경험이 있다”며 “원하는 시간대의 수업이었고, 학점이 후하다는 정보를 듣고 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기간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강인원 자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차라리 돈을 주고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강의를 매매 하는 주요 원인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수강신청의 제도적 맹점에 있다. 인기 있는 강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강신청 당일 많은 학생이 동시에 신청한다. 하지만 정원은 제한되어 있고 신청에 성공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분이다. 실제로 경영학과와 한 인기교수가 맡은 전공필수 강의는 정원이 80명인데 비해 희망과목담기 신청자 수는 500여명에 육박했다. 특히 경영학과는 기존의

재학생과 복수전공자, 전과생을 고려하면 다른 학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인기 강좌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강의 매매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동열(경영학 2012) 군은 “이미 등록금을 냈는데 왜 또 강의를 사야하는지 모르겠다”며 “강의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매대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하는 등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김권혁(경영학 2012) 군은 “강의매매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다”며 “하지만 수강신청 제도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강의 매매 현상과 같은 수강신청의 폐단을 막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Y-CES(Yonsei Course Enrollment System)’라는 새로운 수강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수강신청 당일 학생들에게는 수강 가능학점의 4배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주어진다. 학생들은 신청한 강의마다 마일리지의 양을 자율적으로 분배하여 강의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다른 학생들의 마일리지 사용량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마일리지를 입력한 학생 순으로 수강인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수강신청 제도를 도박에 빗대어 ‘연세 카지노’, ‘연세 토트’ 등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만, 가장 듣고 싶은 강의에 마일리지를 더 많이 투자할수록 수강신청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강의 매매 현상에 대해 학사지원과 측은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학생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매매를 하지 말라는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도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는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 먹방, 허기진 영혼을 채우는 푸드 포르노(上)

전문가 칼럼 - 복고열풍

최태섭  
문화'불평'가



이제는 먹방이 대세라고 말하는 것  
도 새삼스러운 일이다. TV를 틀건,  
온라인에 접속하건 어디에나 먹방이  
있다. 방송의 정체성 자체가 아예 먹  
방인 프로그램도 이미 여럿이고, 드  
라마, 예능, 교양 할 것 없이 먹방이  
등장한다. 연예인들의 ‘화제의 먹방’  
이 앞 다투어 보도되고, 어떤 이들은  
음식 한 번 잘 먹은 덕에 일약 스타로  
등극하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사실 연예인들의 먹방  
은 뒷북이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개  
인 채널로 먹방을 중계하고 그것으  
로 수익까지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  
다. 그들이 방송에서 하는 일은 음  
식을 먹으며 채팅창에 올라오는 댓  
글에 때때로 대거리를 해주는 것이  
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  
을 보면서 ‘별풍선’(개인 방송 사이  
트 ‘아프리카TV’의 사이버 화폐)을  
쏟았다. 굳이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이들의 SNS에는 자신이 먹  
은 음식들을 자랑하는 사진이 반드  
시 있다. 검색엔진과 블로그가 각종  
광고와 프로모션들로 흔탁해진 틈을  
타서, SNS친구들이 제공하는 진짜  
맛집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삶의 소  
소한 지혜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

## 범람하는 ‘먹방’ 열풍 타인의 식사에 열광하는 사람들

이렇게 먹방은 음식을 먹는다는 지  
극히 원초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를,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  
어지는 모종의 의례 같은 것으로 탈  
바꿈 시켰다.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  
다는 옛말이 무색하게도, 이제 사람  
들은 타인의 식사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있다.

물론 과거에도 음식이 방송이나 미  
디어의 소재로 사용되는 일은 흔했  
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을 휩쓴  
웰빙 바람은 ‘잘 먹고 잘 살기’라는



슬로건으로 축약되었고, 덕분에 방  
송과 매체들은 연일 몸에도 좋고 맛  
도 좋다는 음식을 찾아내느라 혈안  
이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일은 드  
물었다.

이 새로운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는 <고독  
한 미식가>를 꼽을 수 있겠다. 일본의  
TV도쿄에서 2012년 심야 시간에 방  
영되기 시작한 이 드라마는 현재 시  
즌 5의 방영을 앞두고 있다. 사실 일  
본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온갖  
먹방의 천국이었다.

그런데 <고독한 미식가>는 그 장  
르 안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드라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등장  
인물은 주인공 하나뿐이고, 스토리  
도 ‘수입상으로 일하는 40대 독신남  
성’이 일 때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  
니다가 배가 고파지면 식당을 찾아서  
원하는 음식을 먹는다’가 전부다. 물  
론 매 회마다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  
는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도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타인’은  
그가 방문하는 가게의 종업원이나 주  
인을 제외하면 자신만의 식사를 즐  
기는데 방해가 되는 곤란한 존재들  
일 따름이다. 즉, 드라마라는 이름을  
붙인 이 영상물에서는 이야기를 만  
들어 낼만한 모든 것들이 거의 방해  
꾼의 역할로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

다. 심지어 주인공의 대사도 그가 음  
식을 먹으면서 내뱉는 독백이 거의  
대부분이다. 결국 4시즌이 다 가도록  
주인공은 그 누구와도 겸상을 하지  
않고 혼자서 밥을 먹었고, 카메라는  
그 ‘먹부림’을 세세하게 카메라에 담  
아 매 회마다 10~20분가량을 오로지  
먹는 장면으로만 채웠다. 이쯤 되면  
이것을 ‘포르노’의 일종이라고 부르  
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인다. 자극하  
는 대상이 성욕이 아니라 식욕이고,  
그래서 심의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만  
빼면 말이다.

## 식욕을 자극하는 푸드포르노 문화적 허기를 위로하다

나 역시 이런저런 먹방의 나름 열  
렬한 시청자이지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제법 심정이 복잡하다. 가  
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으로 나이 없다는 사실이다.

계속된 불황과 그에 따른 가계 및  
노동소득의 저하는 필연적으로 소비  
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소  
비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품목은  
이른바 ‘문화생활’에 대한 지출이  
다. 자꾸만 하한선을 돌파하는 통장  
잔고를 보며 영혼에 스치는 불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밖으로 나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생  
활은 끊어도 밥을 끊을 수는 없는 일  
이니, 우리는 매우 경제적인 셈을 거  
쳐 음식으로 두 개의 허기를 모두 해  
결해 보려는 다소 가련한 노력에 빠  
져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밥 한 끼를 위해  
검색을 하고, 줄을 서고, 정성스레 사  
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소문난 맛  
집 앞에 늘어서 있는 줄은 맛있는 것  
을 먹고야 말겠다는 1차원적인 의지  
일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소문의 일부  
가 됨으로써 얻는 미약한 ‘문화적’  
위안에 대한 의의이기도 하다.

그리고 먹방은 이 위축된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가져본 적 없는 풍요  
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복스럽게 음식  
을 먹여치우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을 보여주며 말초적인 자극과 묘한  
위안을 건넨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소울푸드’는  
어쩌면 음식 그 자체라기보다는 양  
산되는 수많은 먹방과 먹짬들일지  
도 모른다. ‘나 잘 먹고 살고 있다’라  
는 허세와 생존신고가 절반씩 섞인  
음식의 이미지들 말이다. ‘먹기 위해  
산다’와 ‘살기 위해 먹는다’는 두 명  
제가 이 이미지들 속에서 기묘하게  
뒤섞인다. 어쩌면 먹방은 밥 한 끼도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수 없게 된 우  
리들을 위한 식욕증진제 같은 것이  
아닐까.

## 참여마당

지영주  
정치외교학 2014



## ‘여행’, 진지하게 고민하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정기간 동안 기사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내일로’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성년이 돼 우리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느낄 수 있는 ‘해방감’이 큰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  
문일 것이다. 몇 번의 방학동안 내일로를 통해 여행을 다녔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전공연수를 겸한 여행을 다녀오면서 여행의 가치와  
그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봤다.

먼저 먹을 것에 관한 부분이다. 해외여행을 떠나면 필수적으  
로 흔히 음식과 물갈이의 문제에 당면하곤 한다. 물갈이는 반드  
시 그곳의 물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음식의 경우  
에는 선택지가 있다. 라면이나 소고기 고추장 같은 한국에서 가  
져간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고, 로컬음식을 먹는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잘 먹어야 잘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나중에는  
로컬음식을 많이 먹기보다는 나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  
었던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 그 곳의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나라  
의 생활상과 밀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음식  
문제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루에 3번씩 고민해야 하는 문  
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로 느껴졌다.

## 여행을 하며 먹는 음식, 보내는 시간, 즐기는 방식 진지한 고민을 통해 더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 중에 큰 부분은 여행이 진지한 고  
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여행을 다니면 빼놓  
을 수 없는 게 ‘이동시간’이다. ‘이동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의 리듬과는 벗어난 불규칙적인 시간이 생긴다. 때로는 몇몇 사  
람들은 긴 ‘이동시간이’ 지루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항상  
지나다니는 학교 가는 길, 집으로 돌아다니는 길은 너무 익숙해  
져서 무감각하게 지나가지만 여행가서 만나는 낯선 풍경들은 지  
나온 과거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방식에 대한 생각이다. 주변 사람들의 여행  
방식과 그 결과를 볼 때 아쉬운 점이 더러 있었다. 여행이 ‘휴식’  
과 ‘여유’를 오롯이 즐기기보다는 그저 그곳에 다녀왔다는 기록  
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유명한 장  
소에 가서 그 건물과 유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말 진지하  
게 그 장소에 대해 생각해보고 즐기려는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입  
장료가 비싸다고 유적지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봤다. 여행의  
가치는 주관적일지라도 사진으로 나의 여행을 ‘인증’만 하는 사  
람들의 여행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방학은 끝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음 방학에도 그리고 주말에  
도 여행을 떠날 것이다. 자신이 동경했던 장소, 휴식을 위한 휴양  
지로의 여행 등 다양한 여행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점을 통해 조언을 해주고 싶다. 여행을 가기  
전에 로컬음식은 어떻게 먹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행  
에서 이동시간을 지루해하지 말고 사색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행가서 만나는 수많은 장소에 대  
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 ▶1면에서 이어짐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를 의  
미하기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가들  
은 문명을 단수형으로만 사용하였  
다. 문명의 복수형이 나타나는 것은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패배와 비인체  
제 이후 여러 열강들이 유럽의 주도  
권을 둘러싸고 난립하면서부터이다.  
그렇지만 복수의 다양한 문명들이  
모두 동등한 가치로 평가되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월한 문명  
은 근대유럽문명이라는 서구중심주  
의가 이때 등장하였다.

프랑수아 기조는 『유럽문명사』  
(1828)에서 근대유럽문명이 왜 특별  
한지를 이야기한다. 그는 유럽문명이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진보와 자  
유의 원리를 발전시켰고 그 결과 근  
대에 이르러서는 인류사회가 지향해  
야할 궁극적인 미래를 제시한다고 보  
았다. 따라서 근대유럽문명은 단순  
한 개별문명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보편문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기조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후반 유럽



##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상태를 의 미하기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가 들은 문명을 단수형으로만 사용 하였다

이들은 ‘문명과 사명’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미개인들’은  
스스로 문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  
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도움’이 필  
요하다는 문명과 사명은 유럽의 제  
국주의를 정당화하고 서구의 가치를  
세계에 강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  
되었다.

유럽의 서구중심주의적 문명관은  
제국주의를 통해 비유럽지역에도 전  
파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지식  
인들이 civilisation을 중국 고전에서  
빌린 文明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하여  
한국과 중국에 확산시켰다. 이들은  
번역어뿐만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이

분법적 구분, 그리고 서구화가 곧 문  
명화라는 관념까지 함께 확산시켰으  
며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의 급  
격한 단절과 서구식 발전모델의 도입  
을 가져왔다.

그러나 유럽열강들의 제국주의 경  
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과곡으로  
 끝나면서 계몽과 진보에 대한 믿  
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문명의 서  
구중심주의적 관념에도 변화가 생겨  
났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듬해 요한 하  
위징아의 『중세의 가을』(1919)이 출  
간되었고 곧이어 마르셀 모스의 『증  
여론』(1925)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목적은 이제까지 서구중심주의에 의  
해 배제되었던 ‘또 다른’ 문명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러  
한 움직임은 이후 연속적으로 벌여  
진 일련의 사건들 - 대공황, 파시즘,  
제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  
와 홀로코스트 등을 거치며 더욱 가  
속화되었고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근대서구문명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  
과 새로운 문명관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진다.

## 2015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교과목 '사회봉사 123'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 가능 학점  
가. 성적부여 방식: P / F(2014학년도 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항목	2012 2학기 이전	2013~1학기부터
취득요건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 활동 30시간으로 학점 인정	재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0시간으로 학점 인정
인정기준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 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능 ① 교외봉사: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서울동행프로젝트(http:// donghaeng.seoul.go.kr),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 사이트를 통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단, 취업진로지원센터, 사전 협의 되어야 함을 실시한 경우 ③ 한일: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한일중서 원본을 기증한 경우(한일중서 원본 이외 다른 서류 제출 불가)

문의: 취업진로지원센터(031-201-3009)

3.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취업진로지원센터)	실적등록
대상	2015-2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제출기간	2015년 11월 25일(월) ~ 2015년 11월 27일(금) 17:00까지 *휴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 실적등록 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3. 소견문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4.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같은 날 실시한 한일+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  
나. 한일중서 기준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한일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  
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2. 28 이전	2006. 3. 1~2011. 2. 28	2011. 3. 1 이후
한일중 1명당 인정시간	15	8	4

##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문화

## ‘경희의 소리’ 가락을 펼치다 … 풍물 연합 ‘대동굿패’

## 대동굿패 여름 정기 전수

정혜빈 기자 2015101892@khu.ac.kr

1980년대부터 대학생들은 “우리의 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자”는 마음으로 동아리에 모여 시골마을로 찾아가 풍물을 배웠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권의 민중운동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으로 풍물은 일시적인 침체를 거쳤다. 그들의 노력이 주춧돌이 된 민족 문화를 깨웠고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남겨주었다. 우리학교에도 정경대학의 ‘두래패’, 이과대학의 ‘한얼’, 공과대학의 ‘탈머리’, 전자정보대학의 ‘민족자주 터’, 생명과학대학의 ‘깁맥이’, 국제대학의 ‘열두마당’ 등의 풍물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풍물놀이는 탁 트인 넓은 마당이나 공터에 몇 십 명의 사람이 모여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공연된다. 풍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만큼 같은 경희인이 모여 부족함을 채우고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89년도에 연합회를 이뤘다. ‘임실필봉가락’을 치는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국제대학의 풍물동아리가 모여 국제캠퍼스 풍물동아리 연합회 ‘대동굿패’를 만들었다. 대동굿패는 풍물을 배워 오기 위해 여름, 겨울 두 번에 걸쳐 전수를 떠난다.

대동굿패는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여름전수를 위해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으로 향했다. 대동굿패는 ‘열두마당’ 출신인 김민규 사부(회계학 89)를 중심으로 진도북놀이를 가르칠 최재엽 사부, 설장구를 가르칠 이호정 사부, 태평소를 가르칠 이명민 사부를 초빙했다.

학생들에게 외부에서 진행되는 전수는 비용이 부담된다. 대동굿패는 전수기간동안 중동면에서 오래도록 풍물을 가르쳤던 김민규 사부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할 수 있었다. 대동굿패는 그 보답으로 중동면사무소 앞에서 8월 23일 오후 5시 주민들과 어우러져 공연을 했다.

주민들은 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막걸리를 따라주었다. 더운 별 아래 땀 흘리는 학생들의 목을 축여주며 주민들이 학생들에게 했던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반갑다’는 인사였다.

이날 공연은 마을을 돌며 공연을 알리는 ‘길놀이’와 본 공연인 ‘판굿’으로 이루어진다. 판굿은 채굿-호허굿-방울진-미지기진으로 이루어진 ‘앞굿’에 뒤이어 재능기와 영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중동면사무소 앞은 풍물패의 의상인 ‘치북’을 입고 색띠를



맨 30여명의 대동굿패 단원들로 가득 찼다. 공연을 준비하는 단원들에게 어떤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지 물어보았다. 현 대동굿패 상쇠 김윤환(전자·전과공학 2011) 군은 “팽과리와 북, 장구, 잡색, 태평소등의 악기가 조화롭게 하나의 소리를 내며 단원과 관객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연의 목표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풍물패를 이끄는 상쇠가 팽과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경쾌한 ‘갠지갠지 개갠지’ 소리가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하늘을 깨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팽과리 소리와 함께 길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대동굿패 단원들은 열을 맞춰 마을을 한 바퀴 돈다. 한데 어우러진 길굿장단 소리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자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 박수를 보낸다.

곧이어 상쇠를 중심으로 단원들이 둥그렇게 모여 느리게 채굿장단을 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나누던 담소를 멈추고 공연에 집중했다. ‘덩 덩 쿵덕 쿵’이 ‘덩덩쿵덕쿵 쿵덕쿵덕쿵’으로, 채굿장단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단원들의 움직임도 커졌다. 채굿 장단에 이어 임금의 명령과 이에 복종하는 신하의 답을 풀여낸 굿인 호허굿이 벌어졌다. 상쇠는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팽과리를 쳤고 주민들은 연신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 이후에는 동, 서, 남, 북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액(厄)을 막아 내는 의미에 굿인 ‘방울진’이 이어졌다. 단원들은 달팽이모양의 진(陣)을 빠르게

말고 천천히 풀기를 세 번 반복한다. 그러는 동안 단원들의 얼굴은 달아오르고 손에 땀이 차서 흘러내리는 체를 몇 번이고 고쳐 잡는다. 연이어 두 개의 편을 만들어 전정하는 모습을 풀여낸 미지기진이 펼쳐지고 격렬한 장단이 울리는 가운데 단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호흡을 맞춘다. 한바탕 흥이 고조되고서 단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유로운 장단을 춤추며 치는 풍류굿을 펼쳤다. 잡색은 딸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사진을 찍던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판 한가운데로 나와 함께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다. 춤을 추던 아주머니는 소매를 길게 빼어 땀 흘리는 단원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단원들이 재능기를 준비하는 동안 영월군 중동면의 면장 최영로씨는 “주민 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며 “이런 공연은 올해 들어서 처음인데 학생들이 와서 일단 반갑고 공연에 흥이 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굿이 끝나고 개인기량을 자랑하는 재능기가 시작된다. 재능기는 설장구와 진도북놀이의 순서로 공연되는데, 이 중 설장구는 장구 중 으뜸이라는 뜻으로 장구를 어깨에 메고서 화려한 몸짓과 가락을 보여준다. 한편 전남 무형문화재 18호인 진도북놀이는 흔히 양북이라고 부른다. 여타지역과 다르게 북채를 양손에 쥐고 치기 때문이다. 힘찬 북 가락과 춤사위가 적절히 어우러져있는 놀이다. 여름전수기간 동안 배운 것을 선보이는 결과물이기에 단원들은 지

금까지와는 달리 긴장된 얼굴로 공연을 시작했다. 난이도 높은 재주들이 주민들의 시선을 끌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능기가 끝나고 다음 순서인 영산(零散)을 위해 상쇠가 장구치배 중 우두머리인 상장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영산은 상장구가 원할 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산을 청하는 상쇠에게 상장구는 술을 따라주었다. 상쇠가 술을 마실 동안 단원들은 목청을 높여 사랑가를 불렀다. “너를 보면 신바람이 절로 나고 너를 만나면 좋을시고” 라는 노랫말을 따라 단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고 영산이 시작되었다. 다시 상쇠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모여 점차 빠르게 장단을 쳤다. 남은 흥을 모두 쏟아내는 판굿의 마지막 순서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판으로 들어와 단원들과 같이 하늘을 향해 높이 뛰고 단원들을 따라 춤을 추었다.

공연이 끝나고 ‘민족자주 터’ 상쇠 허신행(전자·전과공학 2014)군은 “각 단대 대동굿패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씩 웃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았다”며 “서로 눈빛만 봐도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해본 사람만 알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민들은 이제 돌아가려는 단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가며 아쉬움을 전했다. 단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마에도 땀이 맺혀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한 할아버지는 풍물을 좋아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학생들이 한 풍물은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우리 가락을 들으면 흥이 나게 되어있어. 더군다나 손주 같은 학생들이 와서 치는데 어깨를 들썩이지 않을 수 없지”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으니 학교에서 공연하던 풍물동아리 옆에 빈 관객석이 생각났다. 풍물은 기자에게도 생소한 분야였지만 우리가락이라는 이름을 걸고 ‘흥’을 내기위해 함께하는 그들의 표정은 모두가 아는 ‘행복함’이었다.

- **길놀이** : 농악대, 길고악대, 탈군 따위가 탈놀이 본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탈춤을 놀 곳까지 풍악을 울리면서 가는 행렬.
- **판굿** : 길림패나 두레패들이 넓은 마당에서 갖가지 풍물을 갖추고 순서대로 재주를 부리며 노는 풍물놀이.
- **치북** : 풍물패가 입는 공연 의상.
- **채굿** : 풍물놀이 판굿의 하나. 일채, 이채, 삼채 따위의 징을 치는 수대로 장단을 차례로 친다.
- **잡색** : 풍물놀이 및 민속놀이에서 정식 구성원이 아닌, 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등장하는 사람.

세계 최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

**DGIST**  
대학원  
2016 봄 학기  
학생모집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원서접수**

**10.15<sup>THU</sup> ~ 10.29<sup>THU</sup>**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http://www.dgist.ac.kr/virtualtour)

전공별	모집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New Biology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전공별 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li> <li>석사과정 : 7,440,000원 + @/년</li> </ul>
가속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7개 센터 (DGIST-LBNL신물질연구센터, 마이크로레이저 융합연구센터, DGIST-ETH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뢰CPS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헬니스융합연구센터)</li> <li>한국뇌연구원</li> <li>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li> </ul>

**전공 오픈랩**

- 일 시 : 9.19(토) 11:30
- 참가대상 : 대학교 3, 4학년 및 대학원 재학생
- 신청방법 : DGIST 입학홈페이지 사전신청 (admission.dgist.ac.kr)
- 9.11(금) 18:0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참가가능
- 참가자 지원사항 : 시외교통비 지원, 무료셔틀버스 운행, 간단한 중식 및 기념품 제공

문의처 T. 053-785-5146 ~7 | E-mail admission@dgist.ac.kr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